

박근혜 시대



주영순 새누리당 전남도당 위원장과 주요 당직자, 당원들이 제18대 대선이 끝난 20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화해·대탕평…새 한반도시대 연다

경제민주화 성장 과실 골고루 나눌 것

신뢰 외교 통해 동북아 평화 정착 확대

변화·개혁 추진 국민행복시대 꼭 실현

새정부 국정운영 방향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여의도 당사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경제·사회·외교 등 전 분야에 걸쳐 향후 국정운영 구상의 일단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나타난 박 당선자의 ‘국정 키워드’는 화해와 대탕평, 국민대통합, 경제민주화, 상생과 공생, 국민행복시대, 튼튼한 안보와 신뢰외교 등으로 요약된다.

◇화해와 대탕평으로 국민대통합 = 박 당선인은 우선 국민대통합 필요성을 역설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화해와 대탕평 인사를 제시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회견에서 “모든 지역·성별·세대의 사람을 골고루 등용해 대한민국의 숨은 능력을 최대한 올리고 국민 한 분 한 분의 행복과 ‘100%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저의 꿈이자 소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에 대한 찬반을 떠나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당리당락과 정략적 발상을 넘어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

보고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한 측근은 설명했다.

◇경제민주화와 상생·공생 = 박 당선인은 회견에서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한 냉정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이 구상하는 위기극복 해법의 일단도 드러냈다.

그는 “주부님들의 장바구니 물가와 젊은이들의 일자리에 대한 고민과 고통은 여전히 크다”며 “다시 한번 ‘잘 살아보세’ 신화를 만들어 국민 모두가 먹고사는 것 걱정하지 않고 청년들이 즐겁게 출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인 방법론으로는 경제민주화와 상생·공생을 제시했다. 공정경쟁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경제성장의 과실을 대기업과 강자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경제 분야뿐 아니라 정치와 사회 곳곳에도 상생과 공생의 정신이 스며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튼튼한 안보, 신뢰외교 통한 새

로운 한반도 시대 = 박 당선인은 당면한 외교·안보 환경에 대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우리가 처한 안보현실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동북아 역내 갈등과 세계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한 뒤 “튼튼한 안보와 신뢰외교를 통해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토대로 동북아의 화해·협력과 평화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구체적으로 남북관계 해법과 관련, 서울과 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하고 이를 통해 남북 간 신뢰가 쌓이고 북한의 ‘비핵’이 진전되면 국제사회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

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개성공단 국제화, 지하자원 공동개발, 나진·선봉 등 북한 경제특구 진출 등이 대표적인 경험 프로그램이다.

◇변화와 개혁 그리고 국민행복시대 = 박 당선인은 회견에서 “국민 한 분 한 분이 새로운 꿈을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 국민과 함께 국민행복시대를 열어나가겠다”며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구태정치 근절과 기득권 내려놓기, 불공정 거래 근절 등 정치·경제·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대대적인 변화와 쇄신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 대통령-박 당선인 조만간 회동할 듯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간 회동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않았다”고 전제한 뒤 “다음주 내 이 대통령과 박 당선인 간 회동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하급열 대통령실장과 이달근 청와대 정부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로 박 당선자를 찾아가 이 대통령의 축하난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하 실장은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하고 건강에 유의하라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앞으로 이 대통령과의 회동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두 사람간 회동은 박 당선인이 그동안 선대위 체제를 정리하고, 대통령직 인수인계를 위한 구상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후인 다음주 후반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가지도자 연석회의’ 구성하나

박 당선인, 문재인·야당 지도부에 제안

문측 “국민통합 위해서라면 검토하겠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여·야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국가지도자 연석회의가 구성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박 당선인은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유세에서 “선거 과정에 온 나라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며 큰 걱정을 하고 있다”면서 “당선 직후 새 정부가 출범하기까지 여·야 지도자가 만나 대한민국의 새 틀을 짜기 위한 국가지도자 연석회의를 제안한다”고 언급했다.

박 당선인은 20일 당사 기자회견에서 한 대국민 인사에서도 “저나 문재인 후보님 모두 대한민국을 위하고 주인인 국민 여러분을 위

한 마음만은 같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저에 대한 찬반을 떠나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한 약속은 지킨다는 점을 강조해온 만큼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민주통합당 문재인 전 후보나 야당 지도부에 연석회의의 구성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직접 연석회의 멤버로 참여한다는 입장이 것으로 알려졌다. 이한구 원내대표도 참석 대상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민주당의 입장이 관건이다. 예상 밖의 패배로 인한 충격으로 당 내부 기류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차 당선인, 문재인과 통화

“협력·상생의 정치 노력하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전 대선후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앞으로 국민을 위해 협력과 상생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문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치열하게 선거를 치렀지만 이제 다 국민의 삶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선택받고자 함이 아

문 전 후보 측 한 핵심 관계자는 “박 당선인 측이 통합의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만 제안을 해오면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그걸 안 한다고 해서 국가가 무너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박 당선인은 국가지도자 연석회의의 구성이 성사될 경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협력을 통해 연석회의의 논의가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수위원회장은 당 박 인사로 박상증 전 참여연대 공동 대표, 송호근 서울대 교수 등이 분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거론되고 있다. 선대위 인사로는 황우여 공동선대위원장이나 김종인 국민행복위원장, 안대희 정치쇄신특위위원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윤선 선대위 대변인이 전했다. 조 대변인은 박 당선인이 문 후보의 축하인사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박 당선인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해단식에서 “우리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의 마음도 잘 챙기고 답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며 “앞으로 야당을 소중한 파트너로 생각해 국정운영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축이 돼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인수인계 작업에 내부 라인 업무관리시스템인 ‘위민(僞民)’을 적극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무현 정부 시절 내부 업무망인 ‘e-지원(知圓)’을 새롭게 구축한 위민에는 인력의 배치, 관리, 내부 시설, 업무 시스템 등 청와대가 가동되는 기본 골격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대통령과 관련해 생산된 종이·사진·영상 형태의 각종 기록물을 지정과 비지정으로 분류해 대통령 기록관으로 넘기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외교·안보, 경제 등의 분야에서 기밀을 요하는 지정 기록물은 중요도에 따라 최장 30년까지 보안유지 기간이 설정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청, 대통령직 인수·인계 작업 착수

청와대는 20일 대통령직 인수·인계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별도의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총리실 중심으로 각 부처가 하겠지만, 효과적인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청와대 수석실이 직접 챙겨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특히 경제나 안보 분야에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해서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청와대는 아직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박 당선자 측과 예산안에 대한 세부 조율에 주

력,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 정부에서 예산안을 마련한 만큼 박 당선인 측에서 새로운 국정철학에 따라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이를 최대한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민생경제 법안을 포함해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각종 정책에 서도 박 당선자 측의 의견을 존중할 예정이다.

정권 인수인계 작업은 내주 박 당선자 측 인수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수석실과 총무기획관실 등이 주

경매 NPL물건 특수물건

▶비법 배우면서 투자
▶1:1 개인 스터디
▶1인 1물건 추천
▶회비 1,100만원

투자자 모집

▶단독/공동투자 가능
▶투자금 1억원 이상
▶기간 : 1년 정도
▶법적 보장/지분 등기

(주)오현경매 H.010-3605-5000

못 받은 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무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유류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상담전화 정현로이사 010-5879-0005		상담전화 김 종원 이사 010-8227-7759	
○ 우기동 [근린시설 4층] 대652㎡, 전2287㎡ 감평가 14억, 최저가 4억5천	○ 속삭이사실 [치병동] 대704㎡, 전2042㎡ 감평가 32억, 최저가 22억	○ 북구 대촌동 [2층공점] 대지 1506坪 > 건물 1031坪 대지 330坪 > 건물 1357坪 감평가 38억8천 대매가 25억5천	○ 화정동 [창기역에상점] 대지 330坪 > 건물 1357坪 대지 330坪 > 건물 1357坪 감평가 41억5천 대매가 20억(월의후출점)
○ 나주남평 [주유소] 대4428㎡, 전553㎡ 감평가 10억6천 최저가 6억8천	○ 신안면 [보통판사실] 대4706㎡, 전1123㎡ 감평가 18억 최저가 8억	○ 북구 대촌동 [2층공점] 대지 3289坪 > 건물 1601坪 대지 362坪 > 건물 1047坪 감평가 52억4천 대매가 36억7천	○ 운양동 [근린시설] 대지 362坪 > 건물 1047坪 대지 362坪 > 건물 1047坪 감평가 39억5천 대매가 27억7천
○ 전북김제 [물류센터] 대8076㎡, 전5004㎡ 감평가 25억, 최저가 6억5천	○ 전주사직단구 [주유소점] 대895㎡, 전988㎡ 감평가 11억4천, 최저가 5억8천	목포 상동 [속삭이사실] 대1709㎡, 전544㎡ 감평가 18억4천, 최저가 13억1천	여수하동 [근린상가] 대1369㎡, 전513㎡ 감평가 15억, 최저가 10억5천
○ 현송이항 [공점] 대6536㎡, 전2056㎡ 감평가 9억8천 최저가 2억8천	○ 보성읍 [상가] 대885㎡, 전763㎡ 감평가 7억4천 최저가 1억5천	무안 왕운 [속삭이사실] 대2577㎡, 전346㎡ 감평가 1억, 최저가 18억2천	구례 용방 [공점] 대1295㎡, 전383㎡ 감평가 13억, 최저가 7억4천
○ 충장로 [근린주택] 대215㎡, 전306㎡ 감평가 4억6천 최저가 2억	○ 목포대동동 [수영장] 대1786㎡, 전408㎡ 감평가 4억8천 최저가 1억7천	목포 도곡 [무인점] 대190㎡, 전2628㎡ 감평가 26억7천, 최저가 18억7천	목포 상동 [근린주택] 대1697㎡, 전204㎡ 감평가 188억, 최저가 62억
○ 영광법성 [근린상가] 대1106㎡, 전1297㎡ 감평가 134억8천, 최저가 24억4천	목포 상동 [근린주택] 대1697㎡, 전204㎡ 감평가 188억, 최저가 62억	서구 서림동 [속삭이사실] 대213㎡, 전517㎡ 감평가 32억, 최저가 22억4천	북구 용방 [공점] 대700㎡, 전423㎡ 감평가 22억7천, 최저가 14억5천
임대 및 매매, 김수희 공인중개사 010-8567-4600			

▶ 12월 31일 open 예정인 (주)송향기(임대)에서 업계최고의 대우로 유능하고 성실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 찬모(여)2명, 설강이(여)1명, 홍서방6명, 메니저(남, 여)2명, 메점(여)1명, 경리(여)1명, 영업남(남, 여)2명

▶ 복리후생 : 4대보험, 퇴직금, 월4회휴무, 급여 : 업계최고 대우 및 성과상여금

▶ 근무처 : 나주시남평읍 통림리 171번지 서류접수시 면접, 상담가능(시간예약) H.010-7570-7525

현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개월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게 책임감을 갖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히 구하는 물건(매매나 임대)

〈건물구함〉

- 일반상가 건물 : 3억에서 50억
- 모텔 및 목욕탕
- 고시원
- 다가구주택(임몰, 투룸, 스리룸)

〈토지구함〉

- 지역 : 광주·도전동 하남동 장수동
- 면적 : 200평~300평, * 용도지역 : 자연녹지 * 용도 : 주차장
- 참고용도 300평 정도 대형차량전입가능지역 광주 시내 전역

〈모텔 매매〉

- 서구 각길 20개 대동 4억2천 대도 8억5천 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대도 30억 보증금 7억 임대료 1400만원
- 대도 45억 보증금 6억 월2900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중상상업지역 178평, 360평 대매가 협의 후 결정
- 자연녹지 353평 30m 도로점, 농지전용 권료, 대매가 협의후 결정

〈토지 매도〉

- 광산구 도전동 자연녹지지역 2397㎡(725평) 평당 96만원
- 광장 창고용도로 적합
- 비포장 자연녹지 11463㎡(3468평) 평당 70만원

〈시의 매도물건〉

- 물류창고부지 : 장성군 흥평면, 창성C에서 2.5km 계획관리지역 3200평 평당 45만원 농지전용 건축허가 필

T. 062) 371-1900, 010-2006-0115
상무 무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